

한양대 2020 자료

코드킴의 인문논술

# 개괄

한양대학교는 인문 계열에서 하나의 인문 문항, 상경 계열에서 하나의 인문 문항이 나옵니다. 시간은 각 계열마다 다릅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엔 90분의 시간에 1200자 답안을 써내는 것이고, 상경 계열의 인문 문항은 그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수리 논제의 풀이를 위해서 인문 문항을 빠르게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문의 수는 적은 편이고, 제시문 간 연결도 아주 단순한 편입니다. 덕분에 한양대 논술은 정답성이 아주 높습니다. 의외로 정량적인 답안을 뽑아내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합격자 평균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상경계의 경우엔 수리논술로 인해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지만, 합격자의 대부분은 인문 문제를 어느 정도 맞췄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논술을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한양대는 아주 쉬운 학교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실 한양대 논술은 연세대가 요구했던 것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시문 독해부터 문항 풀이, 답안 작성...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한양대는 입학처에서 합격자 답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몇 합격자 답안들은 저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몇몇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기출 합격자 답안들은 다들 하나 같이 나사가 빠져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작년에 작성한 2018 한양대 해설은 세 가지 답안을 모두 합쳐서 재작성했죠. 이런 방법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양대 논술에서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다룬 뒤, 2019 인문계열의 인문 문항에 대한 해설만을 담아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출간된 제 교재, '1번에 반하는 인문논술 - 개념편'을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한 부교재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 개념편을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해설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2018 인문/상경 해설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문의 분석

한양대 인문 논술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잡자면 발문의 분석일 것입니다. 한양대의 발문 분석 방법은 서강대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연세대나 성균관대의 경우, 발문만 봐도 그 문항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나 서강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문이 모호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문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 공감 능력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공감 능력과 관련하여 (다)의 [A]와 [B]를 분석하시오. (1,200자, 100점)**

(2018 한양대학교 인문계열)

이런 건 뭘 어떻게 하란 걸까요. 논제만 봐서는 알기 힘듭니다. 공감 능력의 의미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서술하라는 것이며, 이걸 가지고 (다)의 [A]와 [B]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라는 걸까요.

이럴 때엔 발문을 한 번에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문이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그냥 제시문을 독해하세요. 그렇다면 제시문 간 관계성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해를 통해 잡아낸 제시문 간 관계성을 통해 다시 발문을 바라보시면, 발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훨씬 쉽게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위 문항의 제시문 (가), (나)는 공감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는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는 킬링 곡선 그래프와 북극곰 사진, 착취 공장의 설명과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독해가 된 상태로 저 발문을 다시 보자면, (가)와 (나)의 내용을 상호보완적으로 합쳐서 공감 능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가)와 (나)가 공감에 대해 서로 다른 방안(이성과 감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다)의 [A]와 [B]를 분석하라는 것은, 사실, [A]와 [B]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앞서 밝힌 공감 능력을 통해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의 [A]와 [B]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니까요.

2019 한양대 인문

코드킴의 인문논술

[문제] (가)와 (나)에 나타난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의 사례 [A]와 [B]의 의미를 각각 추론하시오.(1,200자, 100점)

(가)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나 직업의 위상을 가지고 이른바 계급을 구분해 왔다. 하지만 이후, 한 사람의 계급적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이나 소비 패턴과 같은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었다. 개인은 물질적 부나 직업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누리는 취향이나 여가 활동 등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인이 자신의 지위 상승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연구하는 흐름이 강력하게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자본’이란 특권을 획득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비가시적 자원을 말한다. 경제적 자본은 부와 같은 물질적 자원을 가리키고, 사회적 자본은 인적 네트워크 같은 상징 가치들을 포괄적으로 함의한다. 어떤 계급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살거나 자기들만의 배타적 인맥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들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 외에 지식이나 취향, 스타일 같은 것들도 지위 상승의 유용한 자원이 된다는 견해가 대두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일부 엘리트 층은 발레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취향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자기들만의 동질성을 만들고, 발레와 클래식을 모르는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 지으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자본은 상이한 조건 아래에서 개인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통해 획득하는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조건에 있는 개인들은 비슷한 생활 양식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계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하위문화를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집단별로 발달한 독자적인 문화적 자본이 경제 중심 논의의 대상이었던 계급 문제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나)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인도인, 부르카를 입는 이슬람 여성, 물보다 차를 마시는 중국인, 포옹으로 인사하는 미국인 등을 통해 색다른 생활 양식을 만나면 우리는 신선한 매력과 함께 낯선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경험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혼란에서 벗어나려고 경험적 동일성에 포섭되지 않는 차이를 거부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무지에 의한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쌓아 가는 일인 동시에 자신의 경험 내부로 포괄되지 못하는 이질적인 문화적 충격에 대한 인정과 관용의 자세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 경험들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배태되는 것이며, 전체적인 인간 구성 요소들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적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일차적으로 인간의 생리적 욕구나 비용의 최적화 원리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자연 환경 아래에서 효율적인 생존 전략을 찾는 과정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이때 한 공동체의 가치나 신념 체계는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가령 힌두 인의 암소 숭배와 이슬람의 돼지 혐오를 생각해 보자. 표면상으로 매우 다른 이 두 현상은 주어진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는 동일한 이유로 발달한 공동체 문화이다. 고온 다습한 인도에서 소는 키우기 쉽고 유용한 가축이다. 소는 초식 동물로서 먹이를 조달하기 쉬우며, 무엇보다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이 지역에서 훌륭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여러 해 키운 후에 육우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가축으로 계속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득이 된다. 따라서 인도 경제에서는 소를 식량으로 소비하는 것을 금기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암소 숭배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 돼지 혐오가 나타나게 된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이슬람교가 발달한 서남아시아 지역은 고온 건조한 사막

기후로 돼지의 생리와 전혀 맞지 않다. 돼지는 잡식성으로서 건조한 기후에서 부족한 식량을 놓고 인간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돼지고기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식량이며,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돼지 혐오라는 관습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다)

[A] 통속적인 대중문화는 사람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실상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즐거움의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내용이 비록 정교하거나 심오한 것은 아닐지라도, 자연스럽게 가식이 없다는 뜻에서 본다면 오히려 훌륭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대단한 것이나 되는 양 다루는 드라마의 이야깃거리도 그 나름대로 오랜 역사성과 폭넓은 저변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그것들은 다른 전통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사의 본질적인 것을 표현하는 양식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위적인 힘을 동원하여 이를 약화시키거나 없애게 되면, 사람들은 생활을 통해 얻은 구체적 지혜 혹은 건전한 오락을 통해 어렵게 발전시킨 예술적 자산에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B] 미국 서부에서 이른바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시대,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광산의 거친 노동 환경이 그러한 발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지는 광부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오래도록 해지지 않는 속성을 목표로 했던 청년의 아이디어가 크게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바지 상표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청바지 문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청바지는 원래의 목표였던 내구성과 실용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멋과 개성을 드러내는 차원으로 그 구매와 활용의 성격이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저소득층의 전매특허였던 것이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소비재가 된 것이다. 나아가 갖가지 장신구를 달거나 천을 덧대고 찢어서 자연스러운 멋을 내는 등 개성적 취향을 충족하는 다양한 청바지가 인기를 얻게 되었다.

# 해설

[문제] (가)와 (나)에 나타난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의 사례 [A]와 [B]의 의미를 각각 추론하시오.(1,200자, 100점)

1. (가)와 (나)에 각각 나타난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 요약
2. 각각을 통해 (다)의 [A], [B] 1:1 대응 설명

## 제시문 독해 -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에 초점

문제에서는 (가), (나) 제시문의 독해 과정에서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에 초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시문을 이에 맞추어 정리독해 해봅시다.

(가) -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

주체 - 특정 계층의 사람들

배경 - 스스로를 다른 계층과 구분짓기 위하여

양상 - 유사한 조건 하의 사람들이 유사한 생활 양식을 공유

결과 - 각 계층마다 다른 계층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하위문화 형성(=문화로 계층을 구분하게 됨)

제시문 (가)는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을 계층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다음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물질적 부나 직업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누리는 취향이나 여가 활동 등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배경 항목에 적어두도록 합시다.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드러낸 이유를 정확히 살펴보자면, 자기 계층을 다른 계층들과 구분짓기 위함임을 제시문 전반에 걸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사한 조건의 사람들은 유사한 생활 방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일부 엘리트 층이 어떻게 하위문화를 형성했는가의 사례를 통해 이 내용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조건에 있는 개인들은 비슷한 생활 양식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계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하위문화를 형성하도록 만들었다.”

“예컨대 일부 엘리트 층은 발레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취향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자기들만의 동질성을 만들고, 발레와 클래식을 모르는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 지으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문화는 각 계층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제시문 (가)의 앞부분에서부터 쪽 이야기했던 부분이니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의 형성 원리를 통해 제시문 (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화의 성격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는 계층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의 성격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결과 항목에 함께 정리해둬시다.

#### (나) -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

주체 - 특정 공동체의 사람들

배경 - 효율적인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

양상 - 힌두 인의 암소 숭배와 이슬람의 돼지 혐오는

주어진 환경에서의 효율적 생존의 과정을 통해 생성됨

결과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격은 인정과 관용의 태도가 필요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와 달리, 문화의 형성 원리와 성격을 효율적인 생존 전략의 탐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찾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는 서로 다른 문화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의 기원을 문화적 경험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전체적인 인간 구성 요소들과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탐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가 특히 깊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하에서 효율적인 생존 전략을 찾는 과정과 문화의 형성’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힌두 인의 암소 숭배 문화와 이슬람의 돼지 혐오 문화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사례로 듭니다.

사례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주어진 환경의 사람들이 효율적인 생존 전략을 찾는 과정’의 결과로 존재한다는 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 독해로 정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시문 (나)는 문화의 형성 원리를 ‘주어진 환경 하에서 나오는 생존 전략’에서 찾고 있기에, 각 문화적 차이가 가져오는 충격에 대해 인정과 관용의 자세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를 두고 (나)가 이야기하는 문화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를 결과 항목에 정리해줍시다.

여기까지의 제시문 독해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제시문 (가)와 (나)를 대충 대립적인 형태로 두고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부분입니다. 대학에 올라와있는 예시답안을 보고 혼자 연습해보세요.

## (다)의 [A], [B]와의 연결

방금 요약했던 제시문들의 내용을 그대로 (다)의 [A]와 [B]에 끌어오면 됩니다. 단순한 1:1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논리적 구조는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의 속성이 [A]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면, 그 문화의 속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A]를 통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연결을 통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논제는 어느 한 제시문이 하나의 사례로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두 제시문의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완벽합니다.

### (가)와 (나)를 활용한 [A] 분석

통속적인 대중문화가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내용은 (가)를 통해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가)의 특정 계층 사람들이 자신의 계층을 구분짓기 위해 타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의 내용 활용]**

허나, 대중문화는 생성 과정에서 인생사의 본질을 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문화는, 그것이 생성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담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에서 말하듯, 무지에 의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받아들일 때에는 관용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내용 활용]**

## 코드킴의 인문논술

### (가)와 (나)를 활용한 [B] 분석

청바지가 발명된 것은 (나)의 문화 형성 원리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인부들이 거친 광산에서의 작업에 적응하며 발명된 문화인 것이죠. **[(나)의 내용 활용]**

한편, 이 청바지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가)의 문화 형성 원리를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청바지가 널리 퍼지게 되자, 개인들은 스스로를 구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되었고, 스스로를 다른 계층과 구분하기 위해 청바지에 여러 장식을 덧대기 시작한 것이죠. (가)의 특정 계층 사람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하위문화를 만들어낸 과정과 유사합니다. **[(가)의 내용 활용]**

이처럼, 청바지의 발명과 발전은 (가)와 (나)에 나오는 문화 형성 원리를 모두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